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눈물 젖은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사진·문서·의류·도서 등
- **문 의 처**: 051-629-861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www.fomo.or.kr/museum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2024 상반기 vol.32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Vol.32 Forced Mobilization

2024 상반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Forced Mobilization

2024 상반기

Vol.32

재단소식

03 기억·통합 그리고 평화를 향하여
06 영혼이라도 고국으로 돌아와 편히 잠드소서

특집

08 731부대 유적 다시보기
12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유족회 홍영숙 회장을 만나다

유물

16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우리 다 기억해야 하잖아
18 우리 동포 죽자하니 청춘이오, 살자하니 고생이라...
20 남양군도에 동원된 392명의 이름들 『단원일부명부』

전시

22 군산에서 '일상日象의 풍속'을 이어가다
23 캘리그라피 특별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품기증

교육

24 친구들아,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
26 근대, 그리고 건축을 이야기하다

카카오톡 채널

28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한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다
30 뉴스레터의 새 이름 'FOMORY'
31 포모가 좋아하는 겨울간식은?
32 포모 가족사진 엽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자원봉사

34 포모 플로깅
36 작은 활동, 큰 감동

도슨트

38 역사관 도슨트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역사관 이야기
39 도슨트가 방송도 한다고?
40 신규 도슨트 소감
41 AI보이스 도슨트

방문기

42 비록 추모한 시간은 짧았지만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관 소식

44 미래 30년 청사진은 우리 머리와 가슴으로
45 2024년 재단과 역사관의 새로운 얼굴
46 모두를 위한 전자책 만들기
48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
49 애독자 엽서 Q&A
50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1 언제 어디서나 역사관을 만나보세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발행일 2024년 6월 25일 통권 제32호
발행인 심규선 I **편집인** 노경달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배연우 배가령 하태현
기획 · 편집 반선영 김정원 I **디자인** 효민디앤피
홈페이지 www.fomo.or.kr/museum

소식지 FoMo는 일제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자입니다.
이번 호의 표지는 우리 기관 마스코트 포모가 환경정화의 날을 맞아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운동)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친환경 용지 콩기름 인쇄
우리 역사관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기억·통합 그리고 평화를 향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0주년 기념행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이 6월 3일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이날을 재단과 역사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해 왔다.

재단은 지난해 말부터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 미래비전위원회, ICT미래기획위원회, 재단10년사편찬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가 그것이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유족 대표로 구성했다. 재단과 역사관의 고유업무인 유족지원, 학술연구, 전시교육, 유해봉환, 홍보활동 등을 집중 논의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ICT미래기획위원회도 외부 전문가와 역사관 운영위원으로 구성했다. AI, 챗GPT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다양한 기술을 역사관의 전시와 교육을 비롯해 재단 활동에 응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단10년사편찬위원회는 재단 설립 이후 10년간의 활동과 인물 정보, 사진 자료 등을 총망라해 5월 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0년사(2014~2024)』(528쪽)를 출간했다.



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임직원 단체사진

재단은 이 책을 <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6월 3일, 내빈들이 앉은 자리에 한 권씩 비치해 관심을 끌었다. 『재단10년사』는 초창기 업적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직원 모두가 집필과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미래세대위원회는 피해자의 3세인 손자와 손녀 8명으로 구성했다. 피해자 2세들인 재단의 특별위원과 자문위원들은 고령으로 점차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세대 위원들은 앞으로 3세대로 넘어가는 유족들의 의사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재단은 분기별로 이 모임을 열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제동원 관련 강의를 함으로써 위원들의 지식과 소양을 높일 계획이다.

재단은 이들 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재단과 역사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5월 9, 10일 부산 역사관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전 직원 워크숍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워크숍에서 각 팀은 위원회들이 제안한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1. 2. 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현장(임직원의 다짐)　3. 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특별위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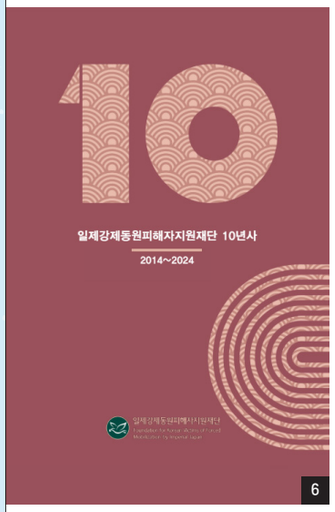

1


2


3



4



6



5


7

4. 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5.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자 모습
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0년사』 표지　7. 국제학술심포지엄 일본과 한국 연구자 단체 사진

재단은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단과 역사관의 각 팀이 제출한 구호를 10개로 정리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임직원의 다짐'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에는 재단 특별·자문위원과 유족, 재단의 이사와 감사, 재단이 만든 위원회 소속 위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그리고 재단과 역사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심규선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단은 '두 번은 없다'는 각오로 피해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념식 다음 날인 6월 4일, 같은 장소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는 <일본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 20년: 보고와 평가, 그리고 전망>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2005년 일본에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와 학자 12명(7명 내한, 5명 줌(Zoom) 연결)이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8명의 저명학자가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제동원'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일본과 한국 학자 20명이 모여 본격적인 토론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심포지엄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을 벌였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재단과 역사관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약속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실천에 옮김으로써 두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패 안치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듣는 유족들

영혼이라도 고국으로 돌아와 편히 잠드소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패 안치식

4월 5일, 일제강제동원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외 희생자 위패 44위를 역사관 '기억의 터'에 안치했다.

우리 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유해를 찾지 못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위패를 '기억의 터'에 모시기 시작해 현재 1,672위를 봉안하고 있다.

이번 위패 안치식에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살풀이 추모공연'과 '위패 안착식'을 차례로 진행했고 일본지역 군무원으로 동원된 故 최성득 씨의 동생 최경득 씨,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박일웅 단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추모사를 낭독했다.

재단은 앞으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널리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도할 수 있는 '기억의 터' 공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위패안치식에서 추모사 중인 심규선 이사장



위패안치식 살풀이 공연



위패를 안치하는 유족

추모사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이시여,
매서운 비바람을 맞으며 엄동설한에 얼마나 외롭고 애통하셨습니까.
이제는 고국에 위패로나마 그대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머나먼 타국에서 원혼으로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던 동생이
형님 영전에서 크게 한번 형님을 불러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16세 어린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낯선 땅 어딘가에 잠들어 계실 우리 형님.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형님과 유골이라도 찾겠다며
먼 길 떠나신 아버지를 기다리며
오랜 세월 홀로 살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한과
동생들의 아픔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령들의 위패를 역사관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여러 영령님들, 고향이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영혼이나마 고국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맺힌 한은 모두 잊으시고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일제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희생자 유족들을 대신해서
고인들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성득 동생 최경득

731부대 유적 다시보기

김동일(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936년 일본은 관동군 방역급수부를 조직하였다. 이 부대는 중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목적이며, 그 내면에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인체실험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이 부대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731부대'이다.

731부대는 이시이 시로(石井四郎)의 주도하에 흑룡강성 하얼빈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중국 내 각지에서 파견 활동도 했다. 주요 활동이었던 생체 실험에는 한국인(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몽골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731부대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731부대의 관련자 다수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일본 내에서 부유한 삶을 이어갔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와 제대로 된 처벌 없는 역사를 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

“아픈 과거와 제대로 된 처벌 없는 역사를 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시에 있는 731부대 전시관

여기서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 있던 731부대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고고학이란 옛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 등의 사회 복원이 있다.

그런데 고고학이 아주 오래된 과거만을 다루는 학문은 아니다. 동시대를 바라보는 근현대 고고학도 존재한다. 본문의 731부대 유적은 동시대를 바라보는 근현대고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731부대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행된 장소에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

731부대는 일본의 패망 이후 부대 내 남은 물자를 소각하고 화약으로 건물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731부대의 특수감옥과 세균실험실은 땅에 파묻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1987년 5월, 중국은 잊혀진 731부대의 특수감옥과 세균실험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지질 탐사 및 고고학 발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2008년 10월 17일 최종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2018년 정식 발굴보고서의 발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731부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잘 모르는 731부대에 대한 면모가 있다. 그것은 본문에서 설명할 731부대의 특수감옥과 세균실험실이다. 이 둘을 합쳐서 소위 '731부대 유적'이라 칭한다.

731부대 유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한다. 731부대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픔의 역사에 대한 흔적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아픔과 불편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











1. 731부대 세균실험실　2. 731부대 유적 화약 폭발 지점　3. 731부대 건물 유적　4. 731부대 특수감옥　5. 731부대 앞 탱크

였고,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중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불편문화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국내에 있는 불편한 역사 유적의 활용 방안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분쟁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역사학계 내에서는 731부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더 많은 사람들은 731부대의 존재나 행적들을 부정하고 있다. 중국은 731부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만약 731부대 유적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일본과의 역사 분쟁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인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일제강점기는 중국만 겪은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도 발생한 일이기에 731부대의 사례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 분쟁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731부대와 같은 불편한 역사라도 우리는 잊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편한 역사를 마주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잘못된 과거가 반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유족회 홍영숙 회장을 만나다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1990년 김경석 회장이 결성한 단체다.
김경석 회장은 1991년 일본 각지에 흩어져있는 징용 사망자 513명의 유골을 모아 춘천 학곡리에 납골당을 지어 모시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1992년에는 동경지방법원에 '강제연행자 피해보상' 소송을, 1993년에는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도야마 재판소에 제기하는 등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남편인 김 회장이 작고한 이후 유족회를 홀로 꾸려온 홍영숙 회장이 작년 2월에 특별·자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유족회 자료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역사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유족회를 방문해 기증 자료를 검토하고 유족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Q. 유족회는 몇 년도에 생겼나요?
1990년도에 생겼어요. 당시 일본 정치인이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이후 18대 일본 총리, 1994~1996)가 제주도에 와서 '인권 문제에는 시효가 없으니, 일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황산성 변호사가 첫 단추를 꿰었죠. 일본에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전쟁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졌어요. 故 김경석 회장님이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소송 업무를 진행하다가 마침내 춘천에 유족회 사무실을 만들게 됐어요.

Q. 보훈회관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2005년도에 춘천시 근화동에 보훈회관 건설이 확정됐어요. 그 땐 김경석 회장님이 생존해 계셨죠. 이전 사무실은 춘천고등학교 건너편, 소방서 건물 2층이었어요. 회장님 당신의 다리가 아프니 새 사무실은 1층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현장만 몇 번 살펴보시고 2007년 정식 입주 전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Q. 이전에 있던 유족회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져왔어요. 회장님께서 자료를 굉장히 아끼셔서 쪽지 한 장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고생해서 수집한 것들이니 그럴만도 해요. 작은 자료라도 언젠가 필요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일본 국립도서관 등을 찾아



남편인 故 김경석 회장의 뒤를 이어 유족회를 이끌게 된 경위를 말하는 홍영숙 회장





춘천시 근화동 강원특별자치도 보훈회관 내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사무실에 보관돼있던 일제강제동원 관련 자료들의 모습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일본 등지를 오가며 활동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계속하셨어요. 덕분에 나중에 재판을 할 때에도 별도의 자료 수집 기간 없이 바로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었죠.

Q.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가 한 일 중에 최근 두드러지는 게 '후지코시 소송'인 것 같은데..

그것도 김 회장님이 단장으로 나서서 진행한 재판이에요. 처음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시효가 지났다며 기각이 됐어요. 그때 김 회장님이 묘수를 냈죠. 당시 피해자들이 모두 기업에 소속돼 일했으니 소송의 대상을 기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요. 변호인단과 상의하고 기업에 소속됐던 피해자들을 따로 모아서 소송했죠. 국가 대상 소송은 기각됐지만 기업에 그 책임을 물어 결국 승소했으니, 우리 유족회가 그걸 계기로 재조명받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죠. 11년이나 걸렸으니까,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승소해서 기쁜 한편 안타깝기도 해요.

Q.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움 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김 회장님이 한창 소송으로 바쁘던 때 이야기에요. 당시 김 회장님이 소장을 손으로 쓰고 있는 걸 보고는 다나가와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소장은 수기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소장 쓰는 걸 도와주셨는데, 한국인이 일본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소문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 거 같아요.

회장님이 일본인 사회에 "이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다음 세대에 한국과 일본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야마의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조직된 게 도야마 시민단체에요. 특히 다나가와라는 분이 소송 업무를 많이 도와줬어요. 변호사도 23명이나 소개해줘서 그분들이 무료로 변호를 해주기도 했고요.



영화「강을 건너는 사람들」

김덕철 감독이 2006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故 김경석 회장이 직접 출연했다.

1940년대 초반 강제 징용돼 노역했던 가와사키시를 찾은 김 회장의 모습과 일본강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이끌어 낸 일화를 확인할 수 있다.

Q. 홍 회장님도 소송에 참여하셨나요?

일본어는 몰랐지만 재판정에 따라다니면서 집행위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회장님이 편찮으시면서 활동이 힘들게 되니 그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일본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 제가 회장님 대신 업무를 보기도 했죠.

Q.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나요?

도야마에 있는 나카가와 사무국장이 꾸준히 찾아와요. 거기(도야마 시민단체) 회원들이 우리랑 제일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동경의 시민단체와도 일본 전국을 돌며 활동을 했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남은 분들은 아직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지금은 재판이 없어 왕래가 뜸하지만, 안부가 궁금해서 제가 조만간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Q. 생존해 계신 피해자 분들이 많은가요?

지금은 당사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회원들 대부분이 유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회 같은 행사는 이제 거의 없고, 추모제를 지내는 게 가장 큰 행사가 됐어요.

사실,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자신 대에서 마무리하라고 하셨어요. 유족회 일이 고되다는 걸 잘 아시고, 피해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유족들만 남게 될 거란 것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년퇴직하면 유족회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제 선에서 마무리하려던 일을 아들이 이어 한다고 하니까, 놀란 한편 기특하기도 해요.

Q. 재단과 역사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단도 역사관도 정말 잘 해주고 계세요.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증해 드리는 자료도 잘 연구하고 보관해 주시리라 믿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우리 다 기억해야 하잖아”

관련 기사

01

회장님께서 쪽지 한 장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기증자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회장 홍영숙

지난 5월 22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에 보관하던 200여 건의 자료를 부산 역사관으로 운송했다. 유족회의 故 김경석 전 회장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2000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주도해 승소로 이끈 인물이다. 이번에 운송한 자료는 김 회장이 작고하기 전까지 수집한 자료들로, 그간 일본을 오가며 진행한 각종 소송과 김 회장의 활동 관련 자료들이다. 역사관에서는 3차례에 걸친 사전작업을 통해 기본 목록을 작성해 자료들을 운송하였고, 향후 자체 조사와 전문가 검토, 심의를 거쳐 정식 기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편의 피 땀 어린 노력이 담긴 자료들을 보내며 홍영숙 회장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우리 다 기억해야 하잖아”라며 남편의 업적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이라며 “이번 기증을 통해 김경석 회장의 뜻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02

형님에 대한 말을 아끼시던 아버지





강제동원피해자 민영만 씨 사진(왼쪽)과 기증자 민영갑 씨(오른쪽)

역사관 5층 ‘기억의 터’에 새 위패를 안치하던 지난 4월 5일, 위패 안치식에 참석했던 노신사 한 분이 급히 직원들을 찾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민영만 님의 동생 민영갑 님이었다. 그날 역사관에 위패를 안치한 형님 민영만 씨의 사진을 기증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민영만 님은 1943년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어 1945년 광복을 몇 달 앞두고 필리핀 루손(Luzon) 섬에서 전사했다.

군복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에 담긴 사연은 너무도 절절했다. 당시 구장이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장손을 징병 보내지 않으려 했으나,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장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일로 아버지는 손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했고, 형수님은 그 원망에 가족을 등진 채 살아가야 했다. 강제동원의 피해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기증자에 의하면 아버지는 유독 형님에 대한 말을 아끼셨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세태를 이기지 못한 미안함과 장손을 그리워 한 부정(父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 동포 죽자하니 청춘이오, 살자하니 고생이라...

『대동아전쟁실기집』

아버지의 수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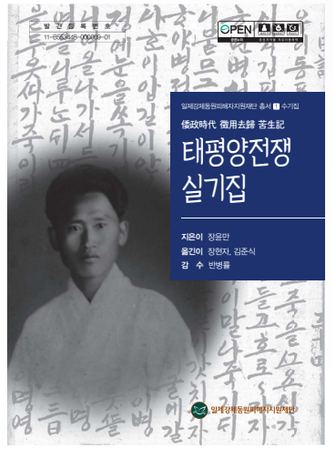
태평양전쟁실기집
바로가기

대동아전쟁실기집 기증자 장현자





대동아전쟁실기집 원본



태평양전쟁실기집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장윤만의 딸이자 기증자인 장현자 님께서 역사관을 방문하셨다. 2020년 8월에 『대동아전쟁실기집』을 기증하신 이래로 첫 역사관 방문이라 더 반갑고, 뜻깊었다.

『대동아전쟁실기집』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총서 수기집으로 공개하고, 그 원본을 역사관이 기증받은 것이다. 각종 언론보도, 역사관의 인문학 특강 등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진 바 있다.

기증 유물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이번 호의 지면을 할애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동아전쟁실기집』은 강제동원 피해자 장윤만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을 동생 장재달이 필사한 원본 수기집으로, 강제동원의 시작인 면사무소 집결부터 국외 강제동원지로 나가는 과정, 동원지에서의 생활, 마지막으로 장윤만이 미군 포로로 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비인간적 강제노역의 순간과 치열했던 전선 상황을 당사자 입장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대동아전쟁실기집』의 전문을 수록해 『태평양전쟁실기집』으로 발간했다. 전국 온·오프라인 도서관 및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

남양군도에 동원된 392명의 이름들 『단원일부명부』

아버지의 유품을 보러 온 아들의 발걸음

지난 5월 16일, 반가운 손님이 역사관을 찾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故 이위상* 씨의 차남 이봉수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고령인 형님 이청수 씨를 대신해 역사관에 기증하신 유물을 보러 멀리 서울에서 발걸음을 하셨다고 했다.

이봉수 씨는 "평소 형님께서 역사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라며 남다른 감회를 내비치셨다. 전시실 구석구석을 관심 어린 눈으로 관람하시는 모습이 자못 인상적이었다.

이봉수 씨의 형님 이청수 씨는 2016년 『단원일부명부』를 역사관에 기증했다. 명부는 상설전시실에 전시 중이었으나 국가기록원 '강제동원명부 디지털화 작업' 등을 위해 현재는 수장고에 보관 중이라 아쉽게도 이번 방문에는 기증해주신 유물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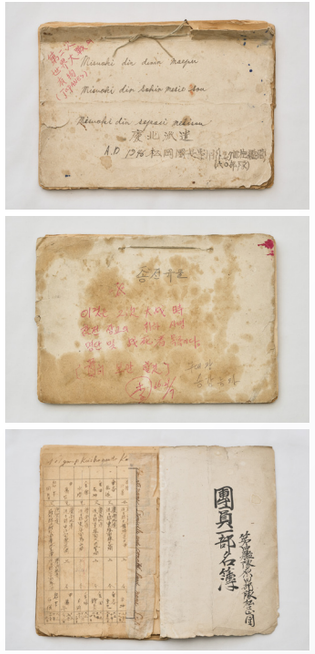
이봉수 님



이봉수 씨가 대연동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4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봉수 대표

- 한국 화공안전 기술사회 회장, 고문
- 한국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협회 고문
- 행안부 재난위원, 화학사고 조사위원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국장
- 수상: 과학기술부장관상, 덕원기술사상(2019년)



단원일부명부

***이위상**

1941년 남양군도로 강제동원되어 1943년 11월 10일 시바우라 보급부 공원(工員)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46년 귀국하여, 72세가 되던 해인 1988년에 작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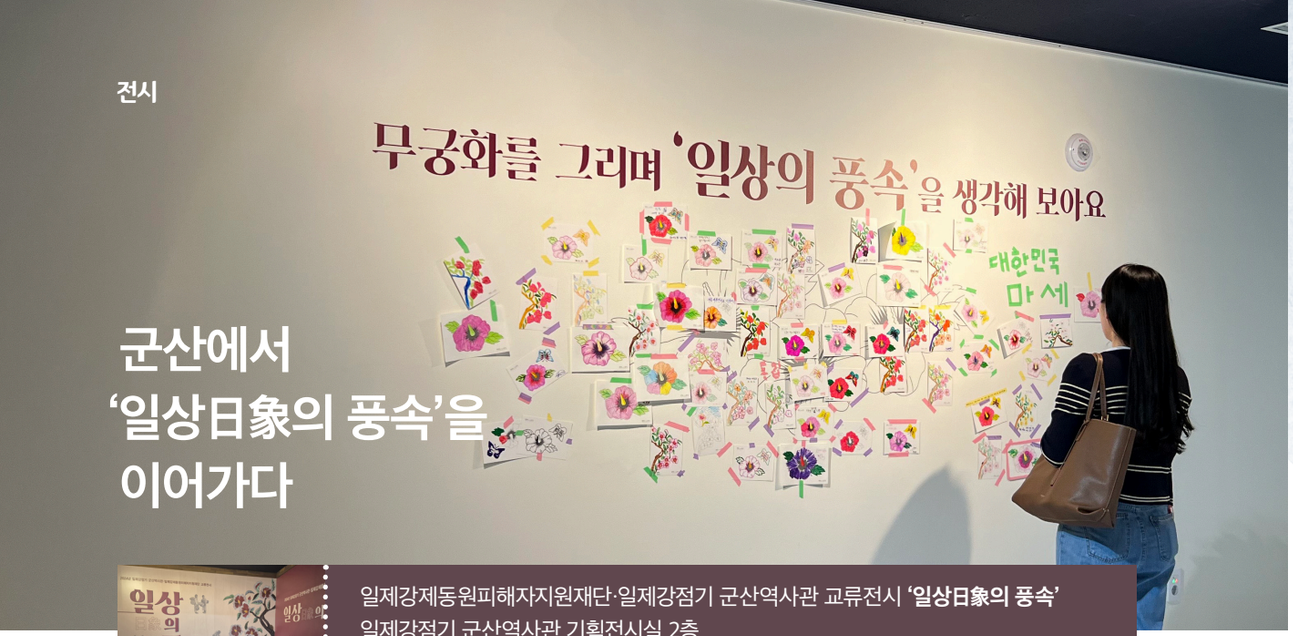
'포모의 느린 우체통' 행사에 참여하여 1년 뒤의 본인과 형님 앞으로 보내는 엽서를 작성하는 이봉수 씨

『단원일부명부』는 피해자 이위상이 남양군도에 동원되었을 당시 작성한 제4함대 하라다부대 마쓰오카단의 명부다. 분량은 26매이며, 총 392명 동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송금액, 수취인명, 연락처, 본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명부 뒤표지에는 '2차 대전 시 참전 장교의 휘하 사병 및 전사자 목록'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명부를 살펴보면 기재된 인원들은 1946년 1월 7일 출항하여 2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위상이 귀환할 당시 기증자 이청수 님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시절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어 명부의 작성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명부를 검증하고 비교 대조 분석 등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 사실 증명 및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다. 해당 명부는 온라인(역사관 홈페이지, e뮤지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역사관은 유족분들께서 기증해주신, 유품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올바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산에서 '일상日象의 풍속'을 이어가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교류전시 **'일상日象의 풍속'**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기획전시실 2층
2024년 4월 16일 ~ 9월 22일

역사관은 지난해 4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 '일상日象*의 풍속'을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재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강요된 풍속, 그럼에도 지켜낸 우리의 풍속 이야기를 전달했던 지난해 전시에서 군산의 풍속을 더해 다채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 중 일제 시기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사진들을 골라 다양한 형태의 패널로 전시했다. 또한 군산지역의 민속놀이를 QR코드를 통해 알아보는 코너도 마련해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 전시 막바지에는 이순신 장군도 즐겨 했다는 승경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무궁화 엽서를 그려보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제 시기 이후 명맥이 느슨해진 우리의 놀이를 경험해 보고 우리의 것을 새겨 보는 코너를 통해 잊힌 일상의 풍속과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상日象의 풍속'은 약 3년간 역사관과 교류를 맺어오고 있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열리는 역사관의 2번째 재전시이다. 군산 주민뿐 아니라 군산을 찾는 전국의 여행객들에게 일제의 아픈 역사와 역사관의 의미를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지난 4월 16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 전시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9월 22일까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군산에 가게 된다면 한 번쯤 들러보길 추천한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승경도 체험을 하는 관람객들

* 일상日象 : 일상日象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을 의미하는 조어이다.
** 승경도 : 조선시대 관직이 적혀있는 놀이판으로 조선시대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위해 즐겨했다고 전해진다.

캘리그라피 특별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품기증

재단은 4월 30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단 이사장실에서 윤서영 글씨문화발전소 '글락' 대표와 캘리그라피 작가 및 시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캘리그라피 특별전 『우리는 기억합니다』展 작품기증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작년 9월 16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진행한 캘리그라피 특별기획전 『우리는 기억합니다-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며』의 개최를 기념하고 작품 기증자에게 감사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마련하였다.

작년 개최한 특별전은 큰 의미를 가진 전시였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캘리그라피 작가 5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5명의 시인도 작품 제작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수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시가 끝난 뒤에 캘리그라피 작가들은 작품 회수보다는 기증을 결정하였다. 일제강제동원을 의미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을 모은 것이다.

역사관은 앞으로 기증받은 작품 총 59점을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중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김천시립박물관에서 공동기획전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



캘리그라피 작가와 시인에게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 후 단체사진

친구들아,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

캐릭터와 함께 배우는 어린이 맞춤형 강제동원 교육

교육자료 내려받기

어린이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나만의 귀환선 꾸미기' 페이지

올해 역사관은 신규 교육 프로그램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체험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처음 선보이는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군함도를 주제로 한 일제강제동원 이야기를 기관 대표 캐릭터인 포모와 함께 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를 체험하는 어린이들의 열띤 모습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체험활동지는 팝업북 형태로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등 7가지 활동 미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다양한 구성 중 색칠하기 활동은 어린이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이 없는 자율 활동으로, 아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솔자(보호자) 지도안을 함께 첨부하고 있다. 또한, 역사관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들은 활동지 자료를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도 있다.

프로그램과 더불어 만족도조사 설문지 작성 및 SNS(인스타그램) 업로드를 완료한 참여자에게 색연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참여대상은 어린이체험관 주 이용객인 5~7세로 보호자가 동반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역사관 7층 어린이체험관에서 50분 동안 진행하며, 평일(화~금)은 단체 사전 접수로 1회(10:00), 주말(토)은 선착순 현장 접수로 2회(15:00, 16:00) 운영 중이다.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단체 사전 접수는 역사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051-629-8633)로 가능하며, 토요일의 선착순 현장 접수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근대, 그리고 건축을 이야기하다

2024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 시즌 1

건물에 새겨진 다양한 역사 이야기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건축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2024년 역사관 인문학 특강 시즌1 <근대, 그리고 건축을 이야기하다>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흥미로운 내용들로 꾸며졌다.
인문학 특강 시즌 1은 총 4강으로, 강연마다 '근대'와 '건축' 주제에 맞는 강사들을 초청해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당시 건물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시즌에 진행한 각 강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부산 도서관 이야기 -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백창민 대표

이 강연에서는 우리나라의 개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의 도서관 이야기를 특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각 도서관 건물을 과거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건물로 쓰고 있는지 등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도서관 위주의 내용으로 많은 청강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이었다.

「일제강점기 백화점의 변천사 - 사치의 전당에서 '대동아전쟁' 수행기관으로」

오진석 교수

이 강연은 국내에 백화점이 생겨날 당시 백화점의 기능과 역할부터 시작해 전시통제기에 전쟁을 위하여 배급통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로 변모했던 것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던 강연이었다. 또한, 백화점이라는 건축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있던 점원이나 소비 습관 등 당시 백화점에 대해 폭넓게 알아볼 수 있던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부산의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의 현재적 의미」

신병윤 교수

이 강연은 '인문학 특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서양 근대 건축물 양식들의 특징까지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나 부산 특유의 도시구조와 아파트라는 건축 형태의 등장을 함께 이야기하며 다양한 양식의 건축이 공존하는 부산의 복합성을 잘 전달해 주었다.

「근대기 부산 경남지역의 전쟁유산과 가덕도 해양문화유산」

김기수 교수

마지막 강연에서는 해당 지역의 일제강점기 전쟁유산과 가덕도의 여러 해양문화유산 중에서도 등대를 중심으로 다루어 청강생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현재 가치와 보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이었다.

인문학 특강 시즌 1에 참여했던 청강생들은 "근대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를 쉽게 풀어주었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주제의 강연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앞으로는 역사와 관련된 답사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등 여러 의견을 남겨주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시즌 인문학 특강에서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처럼, 올해 진행할 인문학 특강은 시즌마다 테마를 정하여 강연을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더 많은 청강생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설문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여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인문학 특강도 많은 청강생이 역사관을 방문하여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인문학 특강 소개

백창민 대표 강연
「부산 도서관 이야기 -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오진석 교수 강연
「일제강점기 백화점의 변천사-사치의 전당에서 '대동아전쟁' 수행기관으로」



신병윤 교수 강연
「부산의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의 현재적 의미」



김기수 교수 강연
「근대기 부산 경남지역의 전쟁유산과 가덕도 해양문화유산」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한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다

3.1운동 105주년 기념행사 '대한독립만세'

3.1절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한민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널리 알린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인 만큼 3.1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역사관을 찾는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3.1운동을 통해 더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람객들의 마음을 헤아려, 역사관은 105주년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독립만세' 행사를 기획했다. 역사관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추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태극기 타투스티커와 태극기·무궁화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른 시간부터 찾아준 관람객분들 덕분에 준비한 수량을 빠르게 소진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참여자들의 소감

Q 3.1절 기념행사 어땠나요?





진서윤 (연포초등학교)
3.1절을 맞아 역사관을 찾아왔는데 체험도 재밌었어요!



박시현 (연포초등학교)
친구와 함께와서 체험도 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되었어요.



이동은 (문현여자중학교)
엄마와 역사관을 찾아왔는데,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뜻깊은 3.1절이 됐어요.



유태연 (성동초등학교)
엄마와 함께 온 역사관에서 체험을 하면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겨 봤어요.



안유섭 (모덕초등학교)
3.1절을 맞아서 이모와 함께 왔는데 잘 몰랐던 3.1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민서 (명지초등학교)
아빠와 함께 왔는데 체험을 해보니 3.1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

Q 3.1절에 역사관에 방문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한국줄넘기연맹 줄친구점프점프팀 (손석호 회장)
부산, 경남, 양산, 대구의 교육원생 90명(지도자 포함)
3.1절을 맞아 아이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교육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매년 역사관 견학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견학을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견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줄넘기라는 운동도 좋지만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역사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뉴스레터의 새 이름
FOMORY



우리 역사관은 역사관 뉴스레터의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 위해 4월 약 한 달 동안 대국민 공모를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공모작은 ▲상징성 ▲대중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예심을 거쳐 10개 작품이 본심에 올랐고 재단·역사관 직원들의 투표 결과 ▲FOMORY ▲포모레터 ▲포모톡톡 3개 작품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이후 인스타그램 대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FOMORY'를 뉴스레터의 새 이름으로 선정했다.

강제동원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새 이름 'FOMORY'에 걸맞게 우리 역사관은 일제강제동원의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당선자 소감
김은미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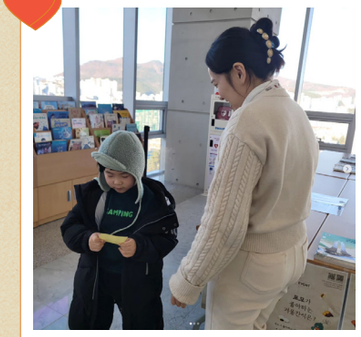
국민 곁에 늘 함께 하는 역사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뉴스레터 명칭 공모전에서 제 작품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역사를 좋아해서 평소 박물관, 역사관, 기념관 등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일제가 자행한 강제동원의 역사와 함께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생생히 배울 수 있었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부터 당선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제출한 'FOMORY'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FoMo)과 Memory의 조합으로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는 우리 국민이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역사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소식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조금이나마 뉴스레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인권과 세계평화의 교육명소로서 국민 곁에 늘 함께하는 역사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
포모가 좋아하는 겨울간식은?



역사관은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채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개설하고 매월 역사관의 행사·소장 자료 소개 등의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포모가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역사관 4층 이벤트홀에 와서 정답을 맞히는 관람객에게 귀여운 포모 스티커를 증정했다. 해당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에 참여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가 경품을 증정하였고, 오른쪽의 사진에서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0jin1245 너무 걷지 않아서, 춥지만 걸으러 나왔다. 평화공원 지나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스티커도 받고 잘 놀다 돌아왔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사관이벤트 #포모는팥붕 #포모가좋아하는겨울간식 @fomo.museum



donghyun5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사관 4층부터 본다. 이벤트존에 가서 포모가 좋아하는 겨울 간식을 맞힌다! 팥붕

#역사관이벤트 #포모는팥붕 #포모가좋아하는겨울간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역사관 #포모 #일제강제동원 #포모스티커

포모 가족사진 엽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포모의 느린 우체통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때부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포모의 느린 우체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자를 대상으로 엽서를 제공하고, 엽서를 작성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1년 후에 기재한 주소로 엽서를 보내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 사용한 포모 가족을 그린 엽서는 강제 징용을 떠나는 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남겼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족사진에서 착안하여 제작하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동원됨으로써 가족 해체의 아픔을 겪었고, 독립 이후에도 어렵게 재회하거나 영원한 이별을 겪었다. 이들의 아픈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포모의 느린 우체통' 행사는 엽서 소진 시까지 역사관 4층 로비에서 계속할 예정이니, 역사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역사관 환경정화의 날

‘포모 플로깅’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역사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플로깅을 하며
역사관과 주변 당곡공원 일대를 정화하고 있다.









작은 활동, 큰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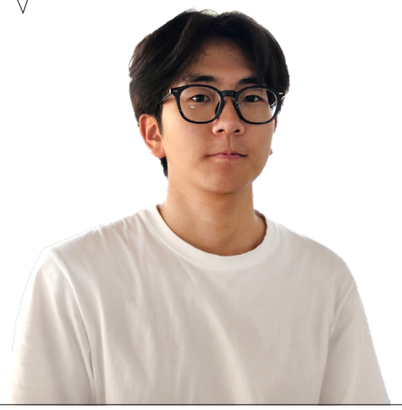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후기

구종수 역사관 자원봉사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역사관의 홍보 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분들의 어려움을 알리겠습니다.

담배꽁초는 당연히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쓰레기도 많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5번의 역사관 봉사활동 중 오늘이 가장 뿌듯한 날이었고, 오늘의 뿌듯함은 오래갈 것 같습니다.

박서준 포모 플로깅 참가자



역사관 주변을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고, 주민분들의 칭찬과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예쁜 산책로가 많고, 함께한 분들 모두 좋아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우용 포모 플로깅 참가자



학과특성상 봉사시간을 채워야 해서 봉사를 신청하다보니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역사시간에도 배우지만, 잠깐씩 조금의 내용들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봉사자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가족 생각이 나서 보러 오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방문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특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일은 일본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오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부끄러운 부분을 직접 마주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으며, 한편으로 이런 곳이 있고,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조금 더 알려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채언 역사관 자원봉사자

석지원 역사관 자원봉사자

근처에 역사관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기회가 안 되어 와보지 못했었는데, 봉사를 하며 역사관 내부도 보고, 관람객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일제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우니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비닐봉지가 채워지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고, 사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현 포모 플로깅 참가자



쓰레기를 직접 주우면서 정말 많은 담배꽁초를 찾아냈고, 본인들도 잘못된 일임을 아는지 하수구나 구석 틈에 숨겨 놓은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관에 전시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만큼 그 부끄러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은 포모 플로깅 참가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유가족과 군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곳에서 봉사한다는 것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고, 봉사를 할수록 능숙하게 관람객들에게 안내해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또한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 편리했고, 역사관 조직의 일원으로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의 역사가 더 기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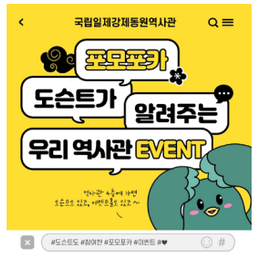
정선웅 역사관 자원봉사자

Docent

역사관 도슨트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역사관 이야기

우리가 알고 싶은 역사관 소식은 물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도슨트가 직접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꼭 들으러 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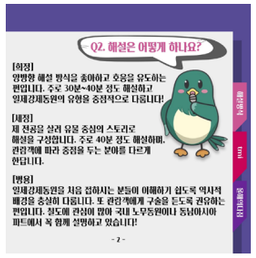


도슨트가 알려주는 우리 역사관 EVENT





도슨트 100문 100답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역사관사전





역사관 봄맞이 꽃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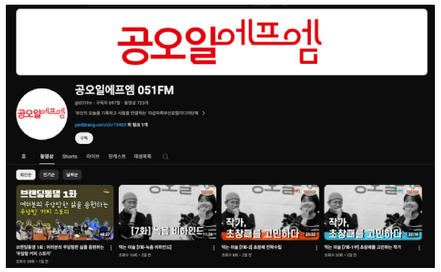
Docent

역사관 도슨트의 특별활동

도슨트가 방송도 한다고?

해당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청년 도슨트 2기이자, 051FM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홍준영입니다. 저희 051FM은 부산의 오늘을 기록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자급자족 부산지역미디어단체로, 2017년 12월 개국하였습니다. 저희 미디어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남기거나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심리상담소 소장님과 함께하는 「스트레스 몰랑몰랑」, 인생의 한 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시민 초대석 「인생 레코드 부산」, 부산의 인디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인디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역사관에서 전시해설을 진행하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역사관에 찾아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부산의 역사를 알리는 방송이라 도슨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 팟캐스트는 사회자 1명과 게스트 2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제가 맡고, 게스트 2명은 매월 도슨트 두 분께서 돌아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1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매월 1회, 우리 역사관 내부의 전체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원의 유형과 지역 등 세부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일제가 제정한 법령이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당시에 발표했던 격문을 직접 읽어보고 정리하여 시청자에게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역사관 도슨트 선생님들께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열정이 넘치셔서 그런지 매월 소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어린이 관람객에게 강제동원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도슨트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우리 역사관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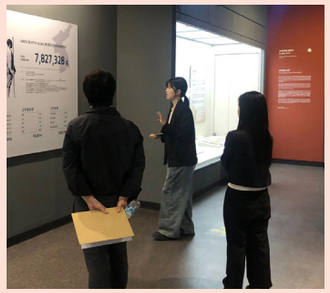
공오일에프엠 유튜브 화면 캡쳐



역사관 포모즈 녹음 현장

Docent

신규 도슨트 소감



도슨트
서사랑

이번에 처음으로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되어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가며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슨트
노규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로 신규 임용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제강점기강제동원의 역사를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러한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슨트
김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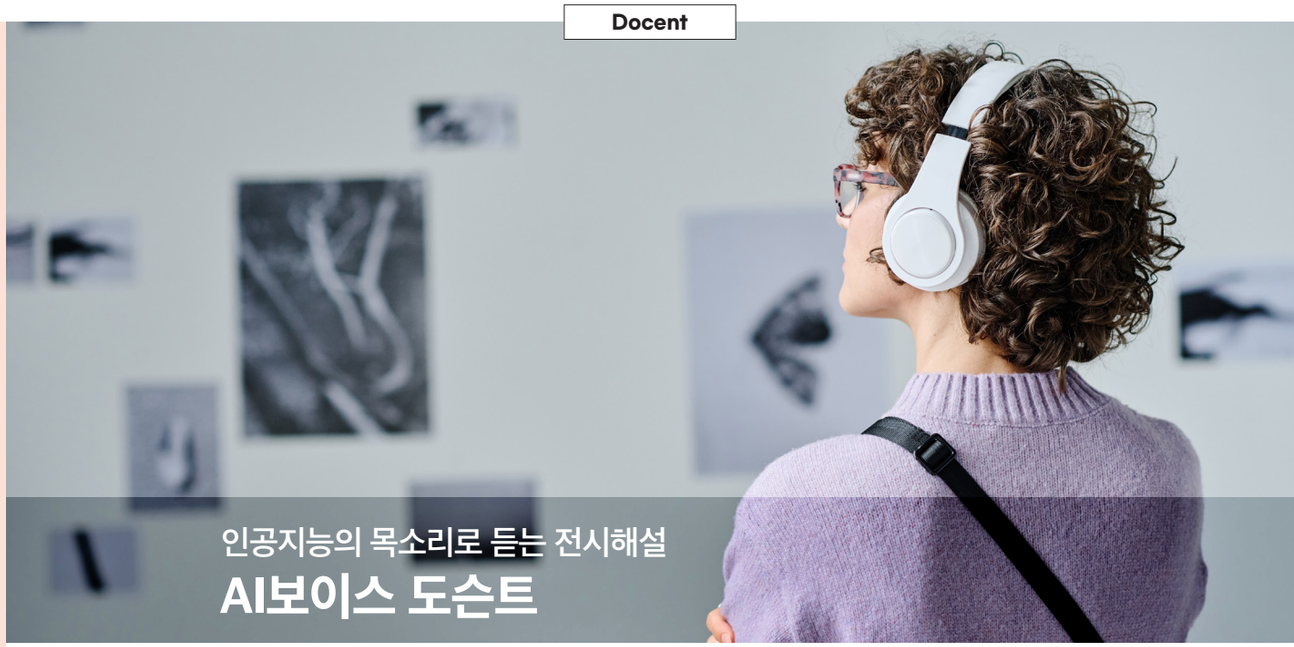
도슨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o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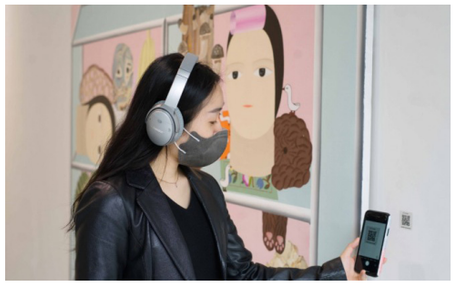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목소리로 듣는 전시해설

AI보이스 도슨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관람객 중심의 전시해설을 위해 AI보이스 도슨트를 도입, 운영하고자 한다.

AI보이스 도슨트는 인공지능이 문장의 뉘앙스와 감정을 이해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전시내용을 해설한다. 텍스트로 작성한 전시해설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내용의 오류를 보정하고, 관람객은 전시장 내 QR코드를 이용해 언제든 원하는 부분의 해설을 골라 바로 들을 수 있다. 전시의 이해도는 물론 전시 관람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서비스는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에는 챗GPT 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소통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사진 - 갤러리 BK AI보이스 도슨트

출처: CJ뉴스룸(https://cjnews.cj.net)

비록 추모한 시간은 짧았지만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방문기 1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허훈녕

징용고지서 실물과 조선인 노무자 숙소의 모형을 보고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일제가 강제 동원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거울'이라는 공간에서는 강제 동원은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위패가 놓인 '기억의 터'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잠시나마 추모하는 시간을 홀로 가졌습니다. 추모한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관에 전시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 근대사 속의 수많은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존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최현진

교수님과 대학 동기들의 추천으로 오게 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과거를 상기시켜 주었다. 4층에는 군인·군무원·노무동원·여성동원으로 강제동원 유형을 나누어 편지,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었고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우리 이름을 검색해 보았는데, 나와 같은 이름의 피해자들의 정보가 막상 눈앞에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5층에는 당시 상황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일제 강제동원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태평양전쟁 당시 노무자 동원, 광산 노무자의 숙소, 탄광, 일본군'위안부' 위안소가 있었다. 5층 마지막 부분의 '시대의 거울'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름과 생몰년도를 기록해 놓았는데, 돌아가신 연도에 미상으로 표기한 분들이 있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였다. 이번 방문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배우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방문기 2 포두중학교

5월 21일 화요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의 포두중학교 학생들이 학예사 인터뷰를 위해 역사관을 찾았다. 학생들은 '학예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힘들었던 순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역사관도 관람했다.



방문기 3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6월 1일,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이 역사관을 방문했다. 추모탑, 기억의 터(위패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전시해설을 듣고, "이 곳에서 더 많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느끼고, 배우고,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미래 30년 청사진은 우리 머리와 가슴으로

2024년 재단 워크숍 현장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2024년도 재단 임직원 소통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역사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재단 설립 10주년, 미래 30년 청사진은 우리 머리와 가슴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재단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날은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 식사 후, 부패 방지 활동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서약식으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어 재단 설립 10주년을 대비하여 구성한 미래비전위원회와 ICT미래기획위원회의 활동사항, 재단10년사편찬위원회 및 활동보고, 각 팀의 미래 발전 전략을 토의하고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부산진성 앞에 모여서, 일대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부산의 지역사에 대한 문화 해설을 들으면서 부산진성 일대와 조선통신사역사관, 승가정 등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



2

1. 2024 재단 워크숍 기념 단체 사진　2. 부산진성 일대 역사 유적지 탐방

2024년 재단과 역사관의 새로운 얼굴

신규직원 임용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재단과 역사관은 신규직원을 임용했다.
새로운 직원들의 각오를 소개한다.

송진규(역사관 시설관리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근무하게 된 송진규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진(피해지원국 연구학술팀)

일제 강제동원되어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위해 재단 사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여 피해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호(재단 특별법연구지원팀)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응은 좋은 곳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에 부응하여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혜진(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재단이 맡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유족과 국가의 이익을 조화롭게 합치시켜 재단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재단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연(경영지원국 재무관리팀)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일 간 교육을 통해 저희를 환영해주시고,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 재단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혁준(역사관 시설관리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김현목(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재단 신규직원으로 임용되어 영광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채(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원이 되어 기쁘면서도 피해자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선배 직원 분들의 모습을 보며 일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분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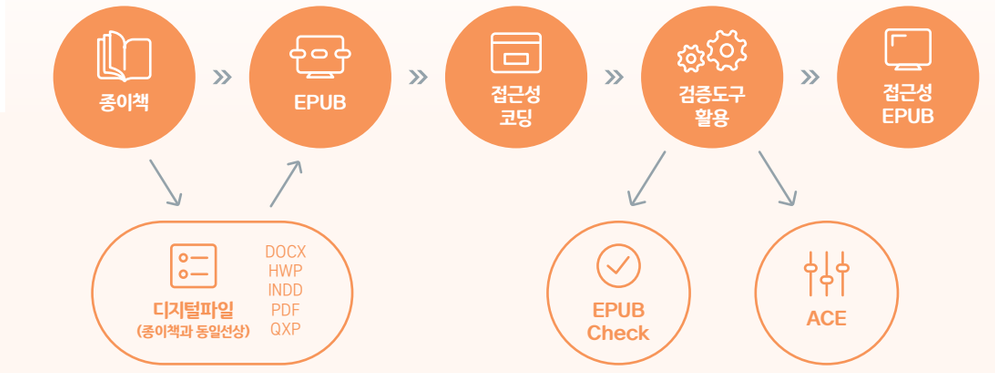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전자책 만들기



2024년 공공간행물(PDF)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원 사업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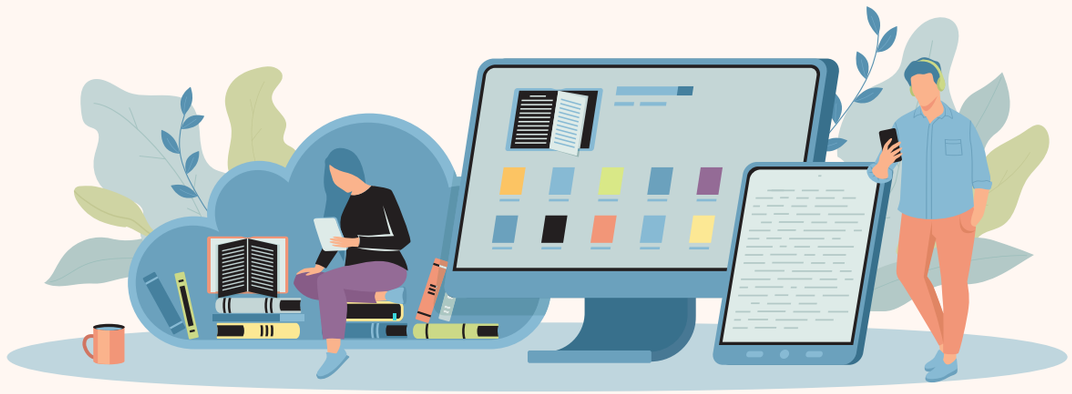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만드는 과정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함께 즐기는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작법을 갖춰야 한다. 시각장애(전맹 또는 저시력자)의 경우, 내용 이해를 위해 책의 본문을 소리로 읽어주거나 글자를 확대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책이 필요하고, 지체장애는 마우스 같은 포인팅 장치 사용이 어렵기에 키보드로 기능 조작이 가능한 전자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자 등 모두가 접근 가능한 전자책을 만드는 법은 국가표준(표준번호 KS X 6201-1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 제1부: 저작지침)으로 제정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4월, 「2024년 공공간행물(PDF)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공간행물과 학술자료 등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PDF/UA)으로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이번 공모에서 역사관 소식지를 비롯하여, 전시도록, 재단의 학술연구 보고서 등 총 25건을 지원했고, 그 결과 지난 5월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자료들은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모두를 위한 전자책'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환을 완료하면, 올해 7월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로써 재단과 역사관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자료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역사관은 이번 공모 선정을 바탕으로, 향후 발행하는 모든 전자파일 형태의 간행물도 '모두를 위한 전자책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소식지 발행 기념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

일정 8월 3, 4, 10, 11, 17, 18, 24, 25일 총 8회

장소 6층 멀티미디어실

시간 1회차. 10:00-10:50
2회차. 11:00-11:50
3회차. 14:00-14:50
4회차. 15:00-15:50

* 7월 중순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진행 예정





애독자 엽서 Q&A

부산의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가 있어 다녀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친이 강제 동원되어 역사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어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역사관 방문 교통편 안내도 부탁합니다.**

이*수 서울시 송파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사관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족 분들께서 역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매우 힘이 납니다.
역사관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체험관의 인기를
새삼 실감합니다. 이제 명실상부 역사관
핫플로 자리 잡았네요.
요청하신대로 이번 호에 어린이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소식을 실어보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소식지2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역사관의 제일 인기 스팟인 어린이체험관을 다루어주시면 가족단위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이벤트 코너처럼 실제 관람객들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권*련 부산시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3년 FoMo 하반기 호(vol.31)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역사적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탄광이나 전쟁터로 끌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생사여부를 몰라 후손들은 그리워하고 안타까운데 **강제동원역사관이 이들을 기억하고 보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야 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장*동 부산시 부산진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족을 만나다」
인터뷰 내용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가 남긴
다양한 숙제들 속에서 역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FoMo』 역시 공감·소통을 위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글을 많이 싣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정성은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등에 전액 사용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사업과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재단은 운영경비 등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전액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해주신 기부금액은 세액공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 기부를 하시는 경우,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및 추념 사업에 전액 사용됨에 따라 깊은 감동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부자분들께는 재단의 정기간행물 무료 교부 및 재단 주최 각종 행사 초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부 참여 방법

1. 기부문의를 먼저 해주세요. (문의 02-721-1890)
2. 온라인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 지정기탁서 QR

기부문의 : 02-721-1890

